

향락 경영은 기업과 나라를 망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국인들은 외국 비즈니스맨에게 왜 아름다운 경복궁을 보여주지 않는가? 대신에 킁킁한 지하실 룸싸롱에 끌고가서 억지로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룸싸롱 접대와 향락경영 그리고 음모스런 요정정치. 한국에서는 일부 층의 비밀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재벌, 기업가, 정치가들은 어두컴컴한 룸싸롱이나 고급 요정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등장하는 장면이다.

심복의 총에 살해당한 전직 군인 대통령의 죽음 시츄에이션조차 상징적이다. 안가라는 향락터에서 꽃봉오리같은 나이의 시중드는 여자와 간드러진 노래로 유명한 여가수를 불러놓고 심복들과 한 밤을 즐기다가 그 꼴을 당한 것이다.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부인과 함께 웃음으로 화답하며 달리는 차 속에서 흉탄에 쓰러진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도 극렬하게 대비되어 비참하다. 아무튼 저 꼭대기 대통령뿐이겠는가. 권력기관의 유명한 폭탄주도 어디 대낮에 사무실에서 퍼먹겠는가. 당연히 야밤의 술집이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중역이라면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가수 뺄쳐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야 접대를 잘해서 목적달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수의 재벌 총수인 늙은 왕회장조차 자동차에서 노래 실력을 닦았다는 소문이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 처절함이 차라리 애처롭다.

한국에서는 중요 비즈니스일수록 대낮에 만나 토론하고 협상하지 않는다. 어둑해질 무렵 퇴근하면서 책임자 급들이 만나 예약된 은밀한 고급 술집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변사또 기생 점고하듯 취향에 맞는 어여쁘고 어린 호스티스를 하나씩 골라서 께차고 여색을 탐닉한다. 그리고 호기를 부리면서 몇백만원씩하는 양주를 퍼마신다. 술이 거나해지면 어금없이 뺨드가 들어온다. 노래를 돌아가며 불러 제끼면서 화류계 경력을 뽐내는 자리다. 노래를 못 부르면 쪽맥, 바보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조명은 더욱 어두어지며 현란해 진다. 그래서 마지막 수치감도 덮어준다. 좁은 공간에서 뺨드 반주소리는 고막을 찢고 노래소리 돼지 목파

듯 하더라도 좋다. 한켠에서는 딸 같은 여자 호스티스를 끌어안고 쌍쌍이 광란의 춤들을 춘다. 취기와 땀이 범벅이 될 즈음 다음 순서가 기다린다. 여자 호스티스 하나씩을 끼고 미리 예약된 호텔방을 향해 흠어들어간다. 물론 현찰 뇌물은 별도다.

이게 한국 최고의 접대며 비지니스의 꽃이라고 관행이 되어왔다. 술과 여자와 노래와 돈의 비빔밥, 접대 향락문화. 접대가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적당히 구실을 붙여 회사돈으로 향락을 스스로 즐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약처럼 향락과 퇴폐도 중독되게 마련이다. 이게 모두 낭비이고 부패고 타락이다.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성직자처럼 고결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도 문제다.

이런 못된 병이 한국에서만 아니었다. 한때 중국에서 같은 동포인 조선족 여자들을 싼 값에 농락했다. 그리고 모멸감을 느낀 한족의 마음 속 깊은 분노를 사기도 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제 버릇 개주지 못 했다. 한국에서 보다 더 난잡했다. 그나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때문이리라.

이러면서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인간들이 불공정한 게임으로 기업과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는데 십분 기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장년이라면 겉은 멀쩡한 듯 보이지만 속이 깨끗한 사람이 적을 거라는 한 의사친구의 귀뜸이다.

건전한 경영, 깨끗한 경영, 투명 경영으로 사람과 기업과 나라의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

전문경영이란 냉철함을 지녔으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한 건강한 경영을 뜻한다. 접대 역시 광란의 뜨거운 지랄병 같은 무리한 타락과 부패가 목적이 아니다.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촉진시킬 정도면 족한 것이다. 향락, 퇴폐, 구걸은 타락행위이지 결코 전문경영이 아니다.